



수학 **채동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교수



물리 **노태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화학 **김광수**  
포항공과대학교  
화학부 교수



생명과학 **김성훈**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과** 학기술부(장관 박호균)는 과기부회의실에서 2003년 12월 16일 제9회 '한국과학상' 수상자로, 수학분야에 채동호(蔡東虎·46)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교수, 물리분야에 노태원(盧泰元·46)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를, 화학분야에 김광수(金光洙·53) 포항공과대학교 화학부 교수를, 생명과학분야에 김성훈(金聖勳·45)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수학분야 수상자인 채동호 교수는 21세기 수학전반에 걸쳐 제시된 난제의 하나인 천-사이몬-힉스 방정식(The Existence of Nontopological Multivortex solutions in the Relativistic Self-Dual Chern-Simons-Higgs Theory)의 비위상 일반해를 증명함으로써 유체의 흐름에 관한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의 수학적 연구이론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을 포함한 순수과학에 있어서도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한편, 물리분야 수상자인 노태원 교수는 강유전체 피로현상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F램 신소재인 BLT 박막을 개발하여, 강유전체 분야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특히 실험물리학자로서 강유전체 피로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실험적으로 실증하면서 근본원리를 발견한 업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화학분야 수상자인 김광수 교수는 양자화학을 이용한 전산모사를 통하여 파이 전자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분자 붕치의 분

자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논문은 그 동안 축적되어온 연구결과들을 집대성한 연구결과가 높이 인정되었다.

생명과학분야 수상자인 김성훈 교수는 단백질 인자인 P38의 발생 과정에서 폐조직의 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한 논문으로 생물학의 기초이론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음은 물론 항암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기초도 제시한 연구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들은 미흡한 국내의 연구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아이디어 창출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으로 이런 시상제도를 통해 과학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뛰어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계속적인 기여를 하게 되길 기대하며,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1세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갈 과학자를 발굴·포상하는 한국과학상은, 1987년부터 기초과학(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분야에서 각 1명씩을 격년제로 선정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총 29명이 수상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지난 5월에 시상 계획을 공고하여 7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15명이 추천됐으며,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 상은 내년 1·4분기 중 대통령이 직접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함께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